

#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선숙\*, 백진아\*\*

한세대학교 박사과정\*, 한세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Ego-Resilience,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Soen-Souk, Seo\*, Jina Paik\*\*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11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본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활용해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수들의 특성,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결혼이주여성 중 경기도 지역 다문화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274명을 추출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 중 결혼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아탄력성과 성역할태도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탄력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안정성과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결혼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성역할 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ego-resilience, and gender role attitude of married migrant women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For the study, a pre-survey was conducted in November 2015 and based on the result, the data collected in this survey over January 2016 through March 2016 was used. SPSS Win 21.0 program was utilized to proceed the analysis for the attributes of variables in marital satisfaction, correlation among variabl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274 subjects around the Multicultural Center users in Geonggi-do were selected as research targets and drew a conclusion a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t showed that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ed migrant women left a negative e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had the highest effect on it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Second, both ego-resilience and gender role attitudes influenced positivel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The need for program development to reduce acculturative stress and enhance ego-resilience was discussed.

**Key Words** : Married Migrant Women, Marital Satisfaction, Acculturative Stress, Ego-Resilience, Gender Role Attitude

Received 30 June 2017, Revised 31 July 2017  
Accepted 20 August 2017, Published 28 August 2017  
Corresponding Author: Jina Paik(Dep. of Social Welfare)  
Email: jpaik1@hanafos.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1990년대 세계화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다.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국가 탈주와 국가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 되었을 뿐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인적 교류 역시 새로운 사회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농촌총각 결혼시킴이 운동으로 촉발되었던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한 이래 다문화가족은 주요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현재 국제결혼건수는 21,274건이며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은 299,241 가구수를 차지하고 있다[1]. 2000년대 중반까지 급증하던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2008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족의 변화에 따른 재개념화와 ‘가족의 다양성’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의미 있게 주목해야 할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원만한 부부관계나 결혼만족도의 향상 등 새로운 가족 구성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결혼안정성에 대한 중요성과는 별개로 상당수의 국제결혼가정이 간단치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이주하게 된 여성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낯선 사회에서의 정착과 적응을 시도하지만 부부간의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와 사회·문화적응 문제, 가정폭력과 인권침해, 혹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 등 국내결혼 부부들이 경험하는 갈등과는 다른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2].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족과 문화와 규범의 차이, 가족 내 갈등, 지지체계 부재 등의 문제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언어적 문제와 문화의 차이, 지지체계의 부재는 한국인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 특히 가장 가깝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편의 이해 부족과 상호 신뢰의 결여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의 가중은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은 결혼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추가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 나아가 인종간의 갈등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만족스런 가족경험과 안정적인 결혼생활의 유지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특별한 경험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는 공감대가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나 국제결혼가정의 안정에 관한 논의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변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질적 문화 사이의 충돌과 적응과정에서의 다양한 변화로 야기되는 심리, 문화적 스트레스[4]로서, 개인이 문화적응 과정 중에 자신이 자라고 교육받았던 문화와 새롭게 접하는 문화 사이의 차이에 직면하여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갈등과 긴장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문화가 수용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주거환경이나 주변 환경, 음식, 경제상태, 언어, 사회제도,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5].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은 기존에 잘 유지하고 있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균형 상태에서 이탈되거나 우울이나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7]으로서, 결혼행복감과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8]. 이와 비슷한 문맥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으면 부부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의 성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9]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결혼안정성이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한 연구[10]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스트레스 외에 자아탄력성이라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1].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협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삶을 개척해가는 적극적인 능력과 도전적인 태도까지를 포함한다.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환경이나 주변 맥락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의 수준을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조절을 통해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는 데 반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경직된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도 발표되었다[13,14]. 결혼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많은 어려움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개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관련된 자아탄력성은 결혼안정과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갈등이라는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열린 자세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행복과 가족애를 찾으며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만, 자아탄력성이 부족한 사람은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자기인식에 몰두함으로써 결혼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결혼이주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과중한 스트레스와 부담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이 결혼안정성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15]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성역할태도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관계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역할태도는 가족이나 사회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남녀간의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여성의 결혼관이나 자아정체성과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에서 부부간의 성역할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부부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고 결혼에 대한 불만감을 고조함으로써 가족 붕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16,17]. 일반적으로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지적되고 있으나, 유의한 영향관계의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전통적이고 경직된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연구가 보고되는[18,19] 한편, 오히려 진보적이고 평등한 성역할관을 고수하는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상반된 주장[20]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부부간의 역할 갈등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남녀간의 성별분업관은 결혼만족도나 결혼안정성 혹은 부부 적응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우리 사회로의 성공적인 적응과 안정적인 결혼생활의 유지는 전체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의미 있는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성역할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11월 경기도 이천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먼저 질문지를 50부 배포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군포시, 수원시, 이천시, 의왕시에 소재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 수강자와 방문한국어 수업 대상자 및 기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주로 중국(86명, 31.5%), 베트남(70명, 25.5%), 필리핀(53명, 19.2%) 등에서 온 결혼 이주자 여성이며, 질문지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다문화센터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기명이고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최대한 솔직한 응답을 요청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280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본 연구에 부합하는 274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결혼 이주여성의 연령은 30대가 136명(4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20대 85명(31.0%), 40대 42명(15.3%), 50대 11명(4.0%)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94명(34.3%), 불교 55명(20.1%), 천주교와 기타가 각각 41명(15.0%), 기독교 35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139명(50.7%)로 절반을 차지하고, 전문대졸 이상 65명(23.7%), 중졸이하가 62명(22.6%)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결혼 이주여성은 대다수가 유배우자이고 30대이며 고졸의 학력과 종교가 무교인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과 관련하여 다수(199명, 72.6%)의 대상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취업한 사람은 26.6%(73명)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형태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209명(76.3%)으로 절반을 넘으며, ‘부부’는 48명(17.5%), ‘기타’ 16명(5.9%)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는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86명(67.9%)로 가장 높았으며, ‘하’라고 응답한 경우는 62명(22.6%), ‘상’은 23명(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결혼기간은 ‘6년 이상~8년 이하’가 86명(31.4%), ‘3년 이상~5년 이하’ 84명(30.7%), ‘9년 이상’ 62명(22.6%), ‘2년 이하’ 41명(15.0%) 순으로 나타났다.

## 2.2 측정도구

### 2.2.1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는 Sandhu & Asrabadi[21]가 개발하고 권명희[6]가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활용했다. 척도의 문항 수는 총 30문항이며 이 중 타당도가 0.4 미만인 ‘결혼한 후 이곳의 생활방식이 달라서 나는 힘들다’, ‘나는 나의 모국의 전통과 관습이 그림다’,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신경이 쓰인다’, ‘나는 나의 모국사람들이 이곳에서 열등하게 취급받는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나의 아이가 외국인 엄마를 가졌다고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 등을 제외한 총 22문항을 분석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5점 척도이며 ‘아주 아니다’ 1점, ‘조금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아주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화적응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값은 .949로 나타났다.

### 2.2.2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 & Kreman[13]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문항을 Woo & Shim[22]이 번역한 후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에 대한 통제를 조절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11]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전적인 태도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높은 적응력 등을 포함한다. 척도의 문항 수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내적일관성이 낮은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 보다는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 좋아 한다’,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를 제외한 총 12문항을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위는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뜻하며, 자아탄력성의 Cronbach’s alpha값은 .846로 나타났다.

### 2.2.3 성역할태도 척도

성역할태도 척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여성가족패널[23] 질문지를 활용했으며 그 중 부정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질문지의 문항 구성은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타당도가 0.4미만인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문항을 제외한 총 5문항을 분석하였다.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태도의 Cronbach’s alpha값은 .765이다.

### 2.2.4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여성가족패널[23] 질문지를 사용했으며, 부정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문항 수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결혼만족도의 Cronbach’s alpha값은 .862로 나타났다.

###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했다. 먼저 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행하였으며 결혼만족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성역할태도 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주요 변수 간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주요 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성역할태도 및 결혼만족도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평균값은 3.803(표준편차=.757), 자아탄력성의 평균값은 3.728(표준편차=.60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남편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도전적인 태도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높은 적응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평균값은 3.016(표준편차=.775)이며, 성역할태도의 평균값은 2.616(표준편차=.628)로서 문화적응스트레스도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가부장적인 성별분업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정규성을 판단하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곡선을 이루고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

Variable	N	Mean	S.D.
Acculturative Stress	274	3.016	.775
Ego Resilience	274	3.728	.603
Gender Role Attitudes	273	2.616	.628
Marital Satisfaction	273	3.803	.757

### 3.2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주요 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성역할태도 및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분석을 위해 실시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결과를 <Table 2>에 제시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r=-.435, p<.01$ ), 성역할 태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24, p<.01$ ). 그러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r=.090, p>.05$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성역할태도( $r=.356, p<.01$ ) 및 결혼만족도( $r=.140, p<.05$ )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역시( $r=.128, p<.05$ )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Acculturative Stress	Ego Resilience	Gender Role Attitudes	Marital Satisfaction
Acculturative Stress	1			
Ego Resilience	.090	1		
Gender Role Attitudes	.224**	.356**	1	
Marital Satisfaction	-.435**	.140*	.128*	1

\* $p<.05$ , \*\* $p<.01$

### 3.3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모델 1]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경제 상태, 결혼기간, 취업여부, 학력을 통제변수로 삽입하였다. [모델 2]는 [모델 1]을 통제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 변수를 투입하여 결혼만족도와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모델 3]에서는 [모델 2]를 통제하고 자아탄력성 변수를 투입해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모델 4]에서는 [모델 3]을 통제하고 성역할 태도 변수를 투입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의 영향력을 파악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 값이 0.1이상을 보여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각 모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모델 1]에서 일반적 특성인 취업여부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beta = -.185, p < .01, t = -2.765$ ),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결혼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여( $\beta = -.191, p < .05, t = -2.348$ ),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통제변수인 연령과 경제상태, 결혼기간 등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12.6%이며, 모형의 F값은 4.586으로 유의확률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2]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추가되면서 [모델 1]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던 학력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취업여부는 여전히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영향력은 조금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eta = -.141, p < .05, t = -2.509$ ).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이 받고 있는 문화적응스트레스

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38, p < .001, t = -5.405$ ). 즉, 결혼이주여성이 차별과 문화적응의 문제 및 분노 등을 경험할수록 남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혼만족도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설명력은 20%로서 [모델 1]에 비해 7.4%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모형의 F값은 8.169로 유의확률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3]에서 자아탄력성 변수가 투입되어도 여전히 취업여부는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75, p < .01, t = -3.113$ ).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도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beta = -.368, p < .001, t = -6.008$ ), 그 영향력은 [모델 2]에 비해 조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 3]에서 투입된 자아탄력성은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31, p < .001, t = 3.776$ ). 결혼이주여성의 개방적인 대인관계와 적극적인 도전의식을 표현하는 자아탄력성은 남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결혼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Table 3>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Ego Resilience, and Sex Role Attitude on Marital Satisfact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Age	.092	.075	.919	.106	.086	1.121	.077	.062	.837	.064	.052	.699
Economic condition1	-.258	-.123	-1.207	-.109	-.052	-.536	-.015	-.007	-.076	.002	.001	.009
Economic condition2	.047	.025	.254	.027	.015	.157	.057	.031	.338	.096	.052	.578
Marriage period	.006	.031	.393	.002	.016	.157	-.002	-.012	-.161	-.004	-.021	-.291
Employment status	-.367**	-.185	-2.765	-.243*	-.141	-2.509	-.299**	-.175	-3.113	-.258**	-.151	-2.681
Education1	-.399*	-.191	-2.348	-.269	-.128	-1.658	-.224	-.107	-1.421	-.224	-.107	-1.421
Education2	.120	.070	.902	.218	.127	1.719	.208	.121	1.693	.208	.121	1.693
Acculturative Stress				-.371***	-.338	-5.405	-.404***	-.368	-6.008	-.436***	-.398	-6.435
Ego-Resilience							.330***	.231	3.776	.240*	.168	2.550
Gender Role Attitudes										.211*	.158	2.430
F		4.586***			8.169***			9.280***			9.128***	
R <sup>2</sup>		.126			.200			.274			.293	
Adjusted R <sup>2</sup>		.098			.227			.245			.261	
Durbin-watson												1.721

notes: \* $p < .05$ , \*\* $p < .01$ , \*\*\* $p < .001$ , Economic condition 1(lower:1, medium/higher:0), Economic condition 2(medium:1, lower/higher:0), Employment status(yes:1, no:0), Education 1(middle school graduate:1, higher than high school/college graduate:0), Education 2(high school graduate:1, higher than middle school graduate/college graduate:0)

27.4%로 [모델 2]보다 7.4% 증가하였고, 모형의 F값은 9.280로 유의확률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아탄력성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긍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 4]에서 성역할태도 변수가 투입되면서 연령과 경제상태, 결혼기간 뿐 아니라 이전의 모델들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학력도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상태는 결혼만족도에 여전히 비슷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beta = -.398, p < .001, t = -7.948$ ), [모델 3]에서 보다 영향력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자아탄력성은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모델 3]에 비해 약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68, p < .05, t = 2.550$ ). 또한 [모델 4]에서 투입한 성역할태도는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58, p < .01, t = 2.430$ ).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평등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역할을 증시하는 인식을 할수록 현재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데 반해 가부장적인 성별분업관을 가질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성평등의식이 확산되고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도전받는 상황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로서의 여성관을 중요시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우리 사회에 지속되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9.3%로 [모델 3]보다 1.9% 증가하였고, 모형의 F값은 9.128로 유의확률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전체 모형에 대한 Durbin-Watson의 값은 1.721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임으로써 오차항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설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성역할 태도 및 자아탄력

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취업여부와 학력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나 결혼기간 등은 결혼만족도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특별한 직업이 없이 전업주부로 집안일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결혼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나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로 인한 불만이나 갈등이 증폭되어 결과적으로 결혼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독립된 자아상과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평등한 관계에 대한 기대가 높은 데 반해 실제 전통적인 가족문화나 차별적인 규범으로 인한 불화가 발생함으로써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둘째, 결혼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결혼 이주여성이 부부간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나 문화적 관습과 전통의 차이, 생활습관의 상이성 등으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설명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10]. 또한 결혼만족도에 대한 부부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영향력을 연구한 선행연구 [24]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간의 부정적인 관련성을 주장한 연구결과[8]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결혼으로 우리 사회에 이주해 온 여성들은 처음 접하는 낯선 문화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화적 차별이나 인종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응의 문제와 언어 및 의사소통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결혼관계가 불안정해지거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사회적응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민사회의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과 복지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만 일상적으로 잠재되어 있거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결혼은 어느 일방의 지배나 강제가 아니라 쌍방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려는 동화주의적 방식보다는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 및 상호소통을 통한 이해의 확산과 공동체 의식을 통해 사회의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복지시스템에서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서 제공받기 힘들기 때문에 먼저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찾아내어 관리하는 작업이 요청된다[12].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비공식적인 자원들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아탄력성 변수는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아탄력성 변수가 투입되면서 결혼만족도에 대한 학력의 영향력이 상실되는 데 반해, 결혼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증가된다는 사실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중요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부적응도(결혼만족도 포함)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9]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자아탄력성이 남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결혼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25]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누구에게나 문제는 발생하며, 특히 자신이 오래 동안 소속된 사회를 탈주하여 새로운 관계와 문화, 규범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결혼 이주여성이 당면하는 문제들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사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제각기 다르며 그 방식에 따라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많은 국제결혼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모든 여성들이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은데 그 성공적인 정착 요인 중의 하나가 자아탄력성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과 적응 및 친화적인 대인관계의 확장 등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낮은 문화와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도전을 통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나 이웃 등의 비공식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으로부터의 지지와 격려는 언어나 기타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자존감과 적극성을 향상시키고, 결혼생활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과 적응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성역할 태도는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응답한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성별분업관과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선호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양성평등적인 의식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여성의 경우, 평등한 결혼생활과 부부역할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26]. 그러나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 성역할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결혼적응도를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27]를 고려했을 때, 이는 흥미로운 내용으로 보다 분석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성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평등한 참여의식이 강화되는 젠더평등의 흐름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는 별개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이 남녀 간의 명확한 성역할의 구분과 그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할수록 결혼생활에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는 주의 깊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평등한 부부관을 지닌 여성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욕구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경험이 가부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특히 각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



할관에 대한 이해가 가부장적 통제가 아닌 남성들의 성실함과 생계부양 책임에 대한 강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른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족의 형성은 글로벌 사회에서 하나의 지배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등장은 더 이상 한시적이고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한 흐름이며, 국제결혼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유지는 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 과제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과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를 경기도지역의 다문화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정 지었기 때문에 전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반화된 논의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정의 안정은 특정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 남편들도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남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결혼생활에서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부부별 실정에 맞는 개인적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결혼여성의 결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부부 모두가 참여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각 사회마다 고유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신국가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도 차이가 클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같은 아시아권에 속할 지라도 개별사회의 문화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출신국가에 따른 가족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http://www.moi.go.kr>.
- [2] O. H. Seo, "A study of women's marital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influencing factors", Master Thesis, Chosun University, 2010.
- [3] B. H. Choi, "A study on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focused on Seoul & Gyeonggi-do", Master Thesis, Konkuk University, 2011.
- [4] C. L. Williams · J. W. Berry,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Vol. 46, No. 6, pp. 632-641, 1991.
- [5] J. W. Berry · U. Kim · P. Boski, "Psychological acculturation of immigrants", pp. 62-89. in Y. Y. Kim · W. B. Gudykunst(Eds.), *Cross-Cultural Adaptation: Current Approaches*, Newbury Park. CA: Sage. 1987.
- [6] M. H. Kwon, "Effects of accumulative cultural stress of women migrated for marriage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ed on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n psychosocial resources",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Vol. 154, No. 1, pp. 275-302, 2011.
- [7] O. N.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Family and Culture*, Vol. 18, No. 3, pp. 63-106, 2006.
- [8] M. J. Kim · D. M. Yeum,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31, No. 3, pp. 1-25, 2015.
- [9] H. S. Kim · H. J. Kim · S. S. Choi,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focusing o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4, No. 2, pp. 153-176, 2010.
- [10] H. K. Lee · H. I. Jeon,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8, No. 4, pp. 413-432, 2013.
- [11] W. Froma,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 [12] H. S. Kim · H. J. Kim · S. S. Cho, "Accultur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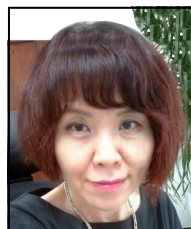
-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focusing o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4, No. 2, pp. 153-176, 2010.
- [13] J. Block · A. M. Krema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 [14] E. C. K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5, pp. 1067-1079, 1996.
- [15] H. R. Sun · G. Y. Jeon,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family-resilience on marital stability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8, No.3, pp. 233-253, 2013.
- [16] S. R. Kim, “A study on the cultural conflict through Korean-Japan international marriage perspective”,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 35, pp. 287-299, 2008.
- [17] O. N.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Vol. 18, No. 3, pp. 63-106, 2006.
- [18] P. R. Amato · A. Booth,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and perceived marital 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3, pp. 58-66, 1995.
- [19] Y. Lee, “Conjugal role sharing on women’s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Population*, Vol. 33, No. 1, pp. 103-131, 2010.
- [20] E. H. Lee, “A study on the sex role attitud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dual-earner men and women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0, pp. 99-118, 2002.
- [21] S. D. Sandhu · R. B. Asrabadi,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Vol. 75, No. 1, pp. 435-448, 1994.
- [22] S. K. Yoo ·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No. 4, pp. 189-206, 2002.
- [23]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s families 4<sup>th</sup>*, 2015.
- [24] S. J. Lee · S. S. Park · J. Y. Song,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to Korean me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30, No. 4, pp. 1-25, 2014.
- [25] E. H. Lee · K. H. Ok,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of immigrant women: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and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7, No. 2, pp. 197-215, 2012.
- [26] M. H. Kong · S. J. Oh,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 on marital satisfaction”, *Family and Culture*, Vol. 22, No. 2, pp. 96-120, 2010.
- [27] H. J. Ann, “A study on marriage satisfaction of couple of international marriage”, Ph.D. Dissertation, Chodang University, 2003.

서 선 숙(Seon Souk, Seo)



- 2010년 7월 : 전남과학대학교 아동학(문학사)
- 2014년 2월 : 한세대학교 치료상담학과(상담학 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5년 5월 ~ 현재 : 이천시다문화복지지원센터 전문상담사
- 관심분야 : 가족, 다문화가족, 노동
- E-Mail : sunponu@naver.com

백 진 아(Paik, Jina)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 사회학박사
- 2006년 2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 E-Mail : jpaik1@hanafos.com